

인쇄하기



인쇄

[HOME](#) > [지역](#) > [진안](#)

진안초 꿈빛오케스트라, '제64회 호남예술제' 은상 수상

👤 국승호 | 🕒 승인 2019.05.29 16:33



진안초등학교(교장 송영임) '꿈빛오케스트라'가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'호남예술제'에서 은상을 차지했다. 호남예술제는 64년 전통을 가진 전국 최대 규모 꿈나무 예술잔치다. 해마다 광주일보가 주최하며 올해에는 '순수한 시각, 뜨거운 열정'이라는 주제로 지난 4월에서 5월까지 두 달 동안 광주 일원에서 열렸다.

진안초 꿈빛오케스트라는 지난 28일 관현악 경연부문에 참가해 은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. 2012년 교육부 지정으로 출발한 꿈빛오케스트라는 62명의 단원으로 구성해 총 11개 파트를 운영하고 있다.

이번 호남예술제 출전을 위해 단원들은 지난겨울 방학캠프를 시작으로 매주 1~2회씩 모여 레슨과 리허설을 실시해 왔다. 예술제에서 발표한 곡은 브람스의 'Hungarian Dance No.5'와 보르고의 'Aboriginal rituals' 등 두 곡. 올해는 한층 향상된 기량을 선보였다는 평가다.

송영임 교장은 "은상은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맺은 작은 결실"이라며 "앞으로 학교는 꿈빛오케스트라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러 대회 출전은 물론 지역의 다양한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"고 밝혔다. 또 "꿈빛오케스트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진안 지역의 학생들이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꿈과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전북의 별 육성사업 및 수자원공사, 진안군청, 충동창회 등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"며 "특히 학부모님들의 따뜻한 관심이 꿈빛오케스트라가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 왔다"고 말했다.

저작권자 ©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국승호 기자

 인쇄